



특별인터뷰

선단동기업인연합회 회장 홍순팔

어로사항 공동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도로정비사업 · 간판정비사업은 포천시 도움 필요해



이다. 따라서 본지는 초대 홍순팔 회장을 통해 선단동기업인연합회의 앞으로 활동방향과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주)

▶창립목적은?

▶선단동기업인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선단동기업인연합회는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단동 관할구역내 기업체의 각종 지원사업, 지역단위 각종행사 지원, 불우이웃돕기 및 시설유선,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사업, 회원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기타 지역발전 및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구성은?

▶선단동 관할구역인 자작동, 선단동, 설운동, 동교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지역별 또는 마을별 기업인협회(공단 포함)의 회장 및 총무로 구성한다.

▶임원구성은?

▶선단동기업인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임원으로 두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

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퇴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선단동기업인연합회는 총회와 정례회를 실시하며 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하고 정례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총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포천시에 지원협조 요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사업이다. 각 기업체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사업이 시급하다. 적극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이다.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도로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환경오염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불법사항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무조건 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엄격한 단속보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

다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회 활동에 대해 회원들에게 당부사항은?

▶열심히 각자 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포천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봉사 프로그램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연합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 발굴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연합회의 앞으로 계획?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안된 통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기업인협회를 구성해 연합회에 가입하여 선단동 전 기업체가 회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협조를 당부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선단동기업인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를 기대한다. 특히 아직 구성되지 않은 통에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업체의 단합된 힘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선단동 주민들이 다짐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33

(주)지이환경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수질오염 방지 절실



대표 김진우(보)

음식을 찌꺼기, 세제, 생활하수와 정화조, 공정에서 유출되는 생활폐수가 하천, 지하수, 해양 등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농촌에서 유출되는 가축분뇨나 농약사용으로 더욱 더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는 높지만 산이 많아 바다로 흘러내리는 우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생활하수에 국민 모두가 솔선

시공에도 진가를 발휘하며 완벽한 일 처리를 자랑하고 있다. 약 20여 년 넘게 환경업계에 몸담아온 김 대표는 서울의 가락동과 마장동일대의 도축장에서 유출되는 폐수를 관리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노하우와 위탁관리 분야에서 수위의 인정을 받아왔다.

현재는 그 무엇보다도 환경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김 대표는 "아직까지도 국내의 환경설비는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설비에 대한 보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라인이나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꺼려해 왔다고 한다. 완벽한 환경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각이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지만 우선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 등 법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환경을 대물림 해주는 것처럼 좋은 선물은 없다. 인간의 모든 조건이 환경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하수관로시설은 경제수준이 비스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하는 한영현 전문가는 "하천이나 수질이 오염되는 주원인은 생활하수에서 유출되고 있다. 가정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생활하수에 국민 모두가 솔선

완벽한 설계 시공과 철저한 오·폐수 위탁관리

자연의 사랑과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가짐 중요

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중에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야 한다.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수 발생 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량이 줄어든 만큼 지표수와 지하수 수질이 좋아져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 국민들이 더 나은 복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위탁관리와 산업 폐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을 취급하고 있는 (주)지이환경(포천시 내촌면 내리 157-10 대표이사: 김진우(보))은 서울 서초동을 시작으로 지난 1998년 위 곳에 정착해 친환경 사회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업체다.

그밖에도 대기오염방지·소음진동방지 설계

수법해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는 별도의 교육과 환경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리·마을단위까지 하수관로공사가 이루어져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5~7년 후면 하천이나 개울에서 이역도 감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오염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으며 후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의 031)532-9392, H.P.011)9719-788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주)지이환경은 대기오염방지와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에서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재테크 33

40대 위기론, 희망을 찾아서

"어쨌든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나. 스무 살보다 서른 살이 힘들고, 서른보다 마흔이 힘들다. 그래도 스무 살이나 서른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희망도 있었는데, 요즘은 앞이 안보인다. 안보여, 여름철 옥수수마냥 애들은 쑥쑥 크지, 마누라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지,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대체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아버지의 가계부"라든 재무설계 책의 한 부분이다. 바로 내 얘기인데 하는 40대들이 많을 것이다. 부부간 대화의 대부분이 돈에 관한 것이고, 부부싸움의 주원인이 돈이라는 신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렇듯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삶 그자체가 아닌 돈에게 주인자리를 내어주고 살고 있는 것이다. 더 갖

고 더 누리고 더 소비하지 못하는 오늘을 불행하다 여기고, 미래에 대해서는 갈수록 불안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돈의 개념이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의 대가로 얻게 되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재수 좋게 터져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식 대박과 부동산 대박 혹은 로또 같이 행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기도 하고, 저축하느니 차라리 쓰는 게 낫다는 분위기 속에서 가계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이 벌어서 원 없이 돈 쓰며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여야 할까? 정말 희망은 있을까?

40. 이제 겨우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은 것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이 아니라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평가되는 것이

다. 아직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하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희망을 찾아나가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많길 바라기보다 돈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책에서 사업실패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찾아낸 아버지가 알려주는 비법은 아래와 같다.

1. 가족과 함께 지출을 기록하자.
2. 지출 기록을 평가하자.
3. 평가를 바탕으로 희망을 가져보자.
4. 안색도 되는 돈이 무엇인지 발견하자.

5. 꼭 써야 할 돈이 무엇인지 가리자.

6. 지출을 최대한 미래로 미루자.

7.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사랑하자.

8. 점점 늘어나는 실립에서 재미를 찾자.

9. 계획대로 지출하는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자.

10. 지출에 앞서 저축을 저지르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행복을 찾아가는 걸음들이 늦게지나지 않나?



무료상담
환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주택과 상가건물 소유자 1세대 2주택 될수 있다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건물을 포함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상 정례해 놓도록 하자.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나?

1. 주택의 판정
-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

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사실의 입증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

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증빙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부(公簿)
"공부"란 관공서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말함.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무관리과
870-4484 - 4487/4502 - 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맨홀 내부 작업 중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재해발생 개요

○ 2005년 7월 19일 13시 53분 경 0000(주) 007(주)인입 송수관 정리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인 피해자가 맨홀 내부의 저수면(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을 닫기 위해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자 맨홀 밖에 있던 동료에 따라 들어갔으나 맨홀 내부 산소농도 결핍으로 근로자 2명 모두 질식,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밀폐된 맨홀 내부에서 산소결핍증상에 의한 질식
나.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및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다. 맨홀 내부 환기 미실시
라. 대피용 기구의 미 배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나. 맨홀 내부 환기 실시
○ 맨홀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내부를 동력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하여야 함.

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구조에 따른 2차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대(031-826-6091)

국민연금 Q&A

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99년부터 제도 바뀌 장애연금 지급

회사채납으로 못 받을 경우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연금액을 장애가 있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99년 이전에는 초진 당시 최소 1년 이상 보합료를 납부한 경우에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초진일이 가입기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예 장애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98년 법개정을 통해 지금은 장애등급이 1~4등급이 인정되면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99년 이전에는 초진 당시 최소 1년 이상 보합료를 납부한 경우에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초진일이 가입기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예 장애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98년 법개정을 통해 지금은 장애등급이 1~4등급이 인정되면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99년부터 제도 바뀌 장애연금 지급
회사는 배상청구 가능

안으로 3년째 투병중인 환자를 예로 들

어보자.
암이 가입 중에 발생했고, 초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시 장애 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 받는다. 2년 경과시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 연금이 인정되면 장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미납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처리해 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